오늘의 복음

“마음으로부터 새로워지는 사람들 6: 사랑하라”
(마태복음 5:43-48)

■ 들어가는 말

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삶에 찾아온 변화는 무엇입니까?

■ 말씀 속으로 - 들어가 봅시다. (마 5:43-48)

43.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
44.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
45.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
46.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
47.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
48.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

1. 유대인들은 원수를 어떻게 대했었습니까?

=> (43절)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

2. 예수님은 원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라고 하셨습니까?

=> (44절)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

3. 세리와 이방인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?

=> (46절)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

(47절)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

4.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,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?

=> (45a절)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…

(48절)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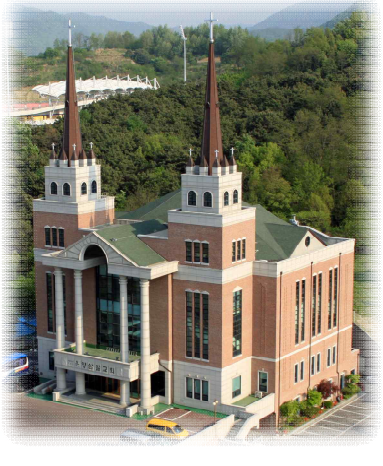
5. 절대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?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결단할 것은 무엇입니까?

=> (돌아가면서 나누어 봅시다.)

■ 기 도

하나님 아버지, 제게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 사람 때문에 상처와 아픔을 겪었기에 상대하기조차 싫습니다. 그럼에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. 부디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, 더 나아가 사랑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소서.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하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

초 청 합 니 다



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.
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,
상처가 있는 곳에 위로가,
절망하는 이에게 희망이,
필요한 때입니다. 이 모든 것을
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.
예수 그리스도!
여기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
잘 인도하는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.
바로 온양삼일교회입니다.
“온양삼일교회”는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당신에게는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을만한 아름다운 삶(신앙)의 이야기가 있나요?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.